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2023 THEME

ALWAYS

be there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k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선교헌신주일예배 Mission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큰 영화로신 주(찬50/새35장)
-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정광목 장로 2부/황세헌 장로 3부/이상노 집사 4부/김종현 집사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작곡 김기영)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유아 세례식(3부) Infant Baptism MinSeong Choi 최민성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스가랴 3:1-10 All together 다같이
4부/역대하 20:1-30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Return & Rebuild(5) 스가랴 강해 숯덩이 같은 나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예수 세움 예배: 전쟁같은 삶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헌금 특송 Offering Song YooHo Kim, SungAh Hong 김유호(오보에), 홍성아(피아노)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기에 있겠습니다(2023년 주제가)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화이트 카드

White Card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다 보면 복싱 경기 하듯 선수들이 갑자기 스틱을 던져 놓고 서로 주먹을 날리며 싸우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아이스하키 팬들은 경기도 경기지만 선수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는 것도 아이스하키 경기의 재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 재미 때문인지 하키 선수들치고 앞니가 남아 있는 선수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운동 경기 중 몸싸움이 많은 종목은 축구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심이 경기 도중 거친 파울을 범한 선수에게 경고의 의미로 옐로카드를 꺼내 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심하면 레드카드를 꺼내어 선수, 심지어 거친 항의를 하는 코치까지도 퇴장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싸움은 늘 과한 승부욕에서 나오는 반칙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고 카드로 선을 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포르투갈 축구 협회 리그에서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화이트 카드'가 등장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자 축구 대회였는데, 벤치 쪽에서 누군가가 몸에 이상이 생겨 경기가 중단된 상태에서 양쪽 응급팀이 함께 대응하는 모습에,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보여주었다고, 주심이 화이트 카드를 양쪽 팀에 들어 올린 것입니다. 이것을 본 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심판이 하는 일은 반칙할 때 호루라기를 부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의 심판은 반칙을 가리는 것이 그들의 임무일 것입니다. 어느 선수가 잘하냐를 보고 호루라기를 부는 심판은 없습니다. 승부를 가리는 세계에서는 늘 반칙이 당연한 듯 자주 일어납니다. 달려가는 선수에게 태클을 걸고, 손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심 눈을 피해 밀치고 당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만 보다가 갑자기 등장한 화이트 카드는 신선하다 못해 신기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심판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반칙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요, 또한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도 아닙니다(갈 6:7).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걷는' 것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 16:27) 당연히 반칙을 했으면 공정한 벌칙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의 주심인 하나님도 화이트 카드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옐로나 레드카드보다 화이트 카드를 더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매일 큐티하며 말씀 속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화이트 카드를 들고 뛰어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황송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마 10:42)

When watching ice hockey games, you often see players suddenly throw down their hockey sticks and engage in fist fights. It's like watching a boxing match. Aside from watching the game, ice hockey fans say that watching the players fight each other is part of the fun. Perhaps that is the reason why we rarely see hockey players with front teeth intact. Soccer is one of the sport games that has a lot of physical fights. During the games, we often see referees holding up a yellow card as warning for roughness. In worse cases, red card is held up. The player and even the coach, who engages in protest, are expelled from the field. This kind of foul often occurs from excessive desire to win. This warning card is meant to control going over the line. Not long ago, in Portugal Soccer League, a 'white card' was presen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soccer games. This became a hot topic. It was a women's soccer cup game. An athlete on the bench had a seizure. The game had to stop and both teams' emergency teams responded together and collaborated showing positive sportsmanship. Thus, white cards were held up for both teams. Fans watching this cheered and applauded

Referee's job is to blow a whistle when players commit foul. It is the referees' job to detect foul plays. Whistles aren't blown for players who play by the rule. Fouls occur often in a world that recognize winners. It's not uncommon to tackle an athlete running a race, or grabbing their hands to fall, or pushing and pulling each other out of referee's view. After seeing such things, this sudden presentation of white card was refreshing and, on one hand, amazing.

We must remember that our God is our judge. He is watching all of our foul moves and he does not neglect (Gal 6:7). As the judge, God's principle is "reap what you sow". "For the Son of Man is going to come in his Father's glory with his angels, and then he will reward each person according to what they have done."(Matt 16:27) You must receive just punishment for your fouls. However, we need to remember that God, our life's referee, also has white cards. He has more white cards than yellow or red cards. I pray that you will be elated to meet God who runs to you with a white card as you begin each day in His Word with your QT.

"And if anyone gives even a cup of cold water to one of these little ones who is my disciple, truly I tell you, that person will certainly not lose their reward."(Matt 10:42)

주일설교시리즈
스가랴 강해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숫덩이 같은 나

(속 3:1-10)

1. 영국 리버풀의 침례교 목사 F. B. Meyer(1847-1929)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혐오하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 The more we know of God, the more we loathe ourselves and repent."(F. B. Meyer, The Prophet of Hope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p. 44) 동의하십니까?
2. 우리 모두는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스가랴의 환상은 그 사명을 재조명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대변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참고/ 엡 2:20-22, 계 12:10, 사 64:6)
3.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성도)은 어떤 상황에서 택한 것입니까? 무슨 교훈을 주는 내용일까요?
(2절, 4절, 참고/ 롬 9:16)
4. 숫덩이 같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8절, 참고/ 고후 5:21, 참고/ 사 53:11, 렘 23:5, 33:15)
5. 일곱 눈이 있는 돌 역시 전지하신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다시 세워질 성전이 될 것에 대한 확신의 근거입니다. 참고 구절을 읽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십시오. (참고/ 시 118:22, 사 28:16, 마 21:42, 벰전 2:6)

적용하기



신년인사-1세 목회자

한결같은 그자리에 있겠습니다



이충경 목사
(기획/행정/기도)

2023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는 어디에 있

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Always be there, 2023년 표어가 이 질문의 해답이 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곧 내가 있어야 할 곳을 깨닫고, 그 자리 있을 것을 다짐해 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신 행정 목사의 자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도모하는 자리에 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한해를 소망합니다. 우리 베델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받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승락 목사
(사랑 목장/QTm/BCA)

2023년 Always be there의 주제로 온 교회가 뜨겁게 기도한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차갑고 비가 많이 오는 날씨 가운데 몸은 움츠러들고 영적 생활도 제자리걸음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어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Always be there하는 2023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저도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저는 따뜻하고 정 많은 사랑 목장에서 항상 그곳에 있겠습니다. 말씀 목장이 필요한 그곳에 QTin과 함께 그곳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교육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리고 실력과 영성을 갖춘 자녀들을 교육하는 Bethel Classical Academy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제 파스한 봄을 맞이하며 각자 계신 그곳에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와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성필 목사
(소망 목장/전도폭발/이웃사랑)

Always be there!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자 항상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해 봅니다. 미국 이민생활을 시작하면서 저의 모습이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참 많이 닮았다는 마음에 영어 이름을 Peter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랍 낚는 어부로 처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주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소명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올해는 소망 목장과 전도폭발, 이웃사랑 사역으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김홍식 목사
(믿음 목장/예배/선교)

저는 요즘 예배 때마다 정말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들과 마음껏 만나지 못한 아픔을 알고, 예배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함께 예배한다는 것, 함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함께 선교할 수 있는 2023년, 올해가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결같은'입니다. 2018년 베델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성도님들이 늘 해 주셨던 말이 "목사님, 지금 마음 변하지 않고 한결같았으면 좋겠어요."였습니다.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종이지만 2023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한결같이 열심히 달려 나가고자 합니다. 2023년도 주님을 향해 함께 뛰지 않으시겠습니까?



박경철 목사
(희평 목장/베델위십/셀)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 지역에 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비가 내리자 캘리포니아

는 홍수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 중에도 캘리포니아는 아직 가뭄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생각해 보니, 아무리 비가 와도 때에 맞춰 오지 않는 비는 가뭄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 재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은혜를 나의 상황에 따라 한꺼번에 예배드리고 한꺼번에 사라는 은혜가 아닌, 때마다 철마다 주시는 매 주의 예배와 매일의 큐티를 통해 나와 우리 가정에서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말씀의 복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Return & Rebuild라는 주제로 스가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자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먼저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합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에 매주 은혜받으시는 베델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박성권 목사
(은혜 목장/교회학교)

①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예배를 보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예배를 위해 주중에 큐티를 강추하여 말씀충만, 찬양충만한 예배로 은혜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②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님의 음성, 내 음성, 사탄의 음성을 분별하고 교사 기도회를 활성화하여 기도로 섬기는 교사와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중보자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③ 아멘저 AMENgers(Avengers 아님)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속령에 순복 하여 어두운 영에 속해 있는 친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 제자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에베소서 6:18)



조태현 목사

(충성 목장/훈련/평생교육)

2022년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해였습니다. 미국에 첫 발을 내디뎠고, 베델에서의 많은 사랑과 배려로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과 새로운 문화 속으로 들어왔지만 그렇기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깊어지고(Go deeper),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아 높아짐(Go higher)을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2023년은 "Always be there!"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 주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니 잠잠히 기대가 됩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욕심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잠재우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다 보면 내 생각보다 넓고 깊으신 주님의 열매를 얻을 줄 믿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사역과 더불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섬기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니 기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머무른 자리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순고 전도사

(새가족/경조/예향)

엘사를 통해 받은 은혜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올해는 더욱 주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지향해 나갈 표어로 'Always Be There'라는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언제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사방이 막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지를 간증하고 찬송이 넘치는 해가 되시길 기도도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손용주 목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에 머물며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창 2:15) 이것은 피조물의 사명인 동시에 피조물이 창조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두신 곳에 머물며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Always Be There!' 올해 베델에 주신 이 주제를 팬데믹 동안 흩어졌던 자기 백성을 다시 제자리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습니다. 사명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라' 하시는 주인의 명령으로 받습니다.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이 이 엄중한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에, 자비하신 안식으로의 초대에 응답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소원하며, 저도 그 축복의 자리에 항상 함께 할 것을 다짐합니다.



김형직 목사

(베델 콰이어)

역수비가 쏟아지는 중에도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회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본당을 가득 채운 수많은 성도들이 'Always Be There!' 구호를 외치며 뜨겁게 기도하고 힘차게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아주 귀하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일찍부터 나와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베델의 미래와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영적 지도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김한요 담임목사님을 비롯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베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생각입니다. 2022년은 베델 콰이어가 기초를 다지는 해였다면, 2023년은 그 기초를 기반으로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찬양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 주제가처럼 힘겨운 삶과 시험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이 부르시는 찬양의 자리, 거기에 있겠습니다. 'Always Be There!'

QTin 간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

1월 18일 큐티는 마태복음 8:23-34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제자들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자 두려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나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나의 교만이 사라지고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가 드러납니다. 그럴 때가 바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때입니다. 소심한 저는 어려워 보이는 일, 해보지 않은 일을 할 때는 두렵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저는 동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저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하게 하시듯 제 마음에 일어나는 큰 놀이와 물결을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매일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규현 집사

수요 예배 간증

오늘 나를 비추는 사사기



지난 수요예배는 주성필 목사님께서 '오늘 나를 비추는 사사기'라는 제목으로 인도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역대 사사 알람표'와 '사사기 전체 지도', '드보라, 기드온지도',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직접 찍으신 파노라마 사진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진을 찍을 당시 언젠가 이 사진들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며 설명해주실 생각에 설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사기 설교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성경 번역상 이해되지 않는 구절은 원문에 가깝게 해석해 주셔서 이해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사기 1-2장은 '실패스

토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 우상 숭배로 타락하는 과정을, 3-16장은 '승리스토리'와 '유혹스토리'로 12사사들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17-21장은 '타락스토리'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설명해주셨는데, 형음, 사라진 환대, 헐박, 강간, 살인, 비인간화, 거짓(편집된 진실), 집단 이기주의, 형제간의 내전, 대학살, 납치, 물질만능주의, 기복주의 신앙, 권력 만능주의, 거짓 평안의 죄악에 빠져있는 당시의 모습들은 오늘의 나를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 되시길 기도합니다.

김희영 집사

'사사기' 하면 구약의 한 역사 기록으로만 여겼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 놀랍게도 역사서가 아닌 예언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언이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란 말씀

에, 과연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반복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주일예배에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잊고, 한 주간동안 불평하고 미워하며 온갖 죄를 짓는 저를 보는 듯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옷니엘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배움, 요즘의 대세를 따르며 살아가는 부끄러운 저의 삶을 회개했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삼손이지만,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순간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심이 위로와 힘이 됩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기 시대의 죄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기억하여, 모든 순간 그것이 삶에 나타나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 힘쓰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내길 결단합니다.

김은혜 집사

MOD 스케치

허락하신 섬김의 자리

팬데믹으로 2년여 동안 열 수 없었던 사역 박람회 1월 22일 교회 본당 앞 프라자에서 열렸습니다. 맡겨진 사역 소개를 잘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온 각 팀은 작업 마무리를 위해 모인 자리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대감으로 설레어 했습니다. MOD 당일,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90여 개의 사역팀이 한자리에 모이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베델교회가 쉬지 않고 애써 온 발자취를 보는 듯했습니다. 올해 주님이 주실 소명을 기대하며 선교, 예배, 교육, 큐티, 기도, 미디어, 시니어 등의 교회 안팎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역 부스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심을 갖고 설명을 들으며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베델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그려졌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라는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역 전선에서

순종하며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새롭게 일어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사역 박람회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섬김의 자리,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다시 서기 원하는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

의 Love Letter였습니다. 때론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김을 결단하였고, 앞으로 결단하실 성도님들을 통해 펼쳐질 은혜가 기대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협력하며 기쁨으로 일할 때 주님이 주실 은혜를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델뉴스팀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소망/전도폭발/이웃사랑: 주성필 목사
 믿음/예배/선교: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현 목사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교 전도사
 BGC: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예살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살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살채플: 강수연 전도사
 예살채플: 조성현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영어중등부: 이사라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안현미, 김은영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충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셀목자 정기모임 시작 및 셀 부흥회

유대인의 격언중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십일'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너와 내가 함께 힘을 합하면 두 사람의 힘을 넘어서는 엄청난 힘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 더하기 0(zero)은 마이너스 십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닌 함께 살아갈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에 나홀로 사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도 놓치는 마이너스의 삶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2023년 봄학기 'Always Be There 셀 부흥회'를 준비하며 그저 사람끼리 모이는 것만으로도 이처럼 큰 힘이 나온다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모이면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은 의심 할 수 없습니다. 그 령기에 우리 셀이 모두 함께 모여 먼저 말씀과 기도로 은혜받고 시작하려 합니다.

이번 집회의 강사이신 김인규 목사님은 목회하기 어려운 교회에 부임하셔서 소그룹(가정교회) 목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사역을 약 20년간 해오셨습니다. 이민 교회 안의 셀모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심에 의지하여 베델의 모든 셀이 새해에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며 이번 집회에 모든 셀 식구들과 앞으로 셀모임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함께하셔서 잊지 못할 부흥회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 ▶ 일시/장소: 2월 10일(금) 오후 7시 30분, 2월 11일(토) 오전 6시(헬시바 기도회), 베델교회 본당
- ▶ 강사: 김인규 목사(울랜드 비전교회 파송 목사)
- ▶ 셀목자 정기모임: 헬시바 기도회 후(셀 목자에게 식사 제공)
- ▶ 문의: 천승현 집사 (512)947-7291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2월) I	2/12: ①부-김광영 ②부-오세영 ③부-김문경 ④부-이종원
	2/19: ①부-김인규 ②부-이상태 ③부-이종교 ④부-김소라
	2/26: ①부-정우영 ②부-김종학 ③부-임낙현 ④부-김승진

헬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2,3월) I	2/11: 장호준 2/18: 정봉화 2/25: 임병규 3/4: 이준혁
강단꽃(2월) I	2/5: 김현준, 오철, 허광훈 2/12: 김형일, 이도원, 전해나, 정명희 2/19: 노성애, 조룡, 최지아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송영실(한외과), 간호사-주경아

다음주 | 의사-노완규(내과), 간호사-이정하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버나버(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람), Nader(Dina), Yeshua, Reza, 박기쁨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성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명), 허바(배안), 이상훈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M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 **미션의 날** 오늘 주일(5일)은 '미션의 날'로 지킵니다. 예배시간에 단기 선교, 선교 헌금 및 선교 기도 작성의 시간을 갖게 되며, 아울러 2023년에 펼쳐질 베델의 단기 선교를 본당 앞 부스에서 선교지별로 소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한 헌신 작성 카드는 본당 앞 제출 바구니에 놓으시면 됩니다. (코트야드에 커피와 어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베델 수요일예배** 조태현 목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말씀 시리즈 두번째 시간입니다. 현장 예배는 본당 조명 공사로 인해 임시로 EM 채플에서 드립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송됩니다.

◆ **셀모임 시작 및 셀부흥회** 새학기 셀모임을 함께 말씀듣고 기도하며 은혜로 출발합니다. 베델의 모든 셀목자와 셀식구들 그리고 앞으로 셀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셀모임의 시작은 부흥회를 기점으로 2월 12일(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7면 참고)
일시: 2월 10일(금) 저녁 7시 30분, 2월 11일(토) 오전 6시(헹시바 기도회)
강사: 김인규 목사(올랜도 비전교회 파송목사)
셀목자 정기 모임: 헹시바 기도회 후(셀목자에게는 식사 제공)

◆ **베델 제자훈련 모집** 봄학기 베델 양육반과 바이블 클럽을 모집합니다. 본당 앞에 설치된 부스나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하실 있고 영어 양육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 1월 29일(주일)~2월 19일(주일)
일대일 양육반, 바이블 클럽 기간: 2월 20일(월) 주간~ 6월(총 16주)
기간: 2월 20일(월) 주간~6월(총 16주)
문의: 진정훈 집사(양육반) (714)318-2183, 최호석 집사(바이블클럽) (949)236-0042

◆ **58차 전도폭발 모집** "복음을 전하며 거기에 있겠습니다!" 복음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생사의 순간에도 해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폭발에서는 복음의 내용을 배우고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을 훈련하게 됩니다.
훈련 일정: 2월 21일~6월 6일(총 15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등록 방법: 본당 앞 부스나 교회 홈페이지
문의: 김성균 집사 (949)838-4110

◆ **Beyond the Blue: 사별가정 회복 세미나** 사랑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을 천국으로 떠나보낸 슬픔과 상실감으로 슬픈 여정 가운데 있는 분들을 은혜로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제8회 Grief Sahre 세미나로 초청합니다.
일시/장소: 3월 3일(금)부터 13 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9시, 조이채플
등록방법/등록비: 베델교회 홈페이지(www.bkc.org), \$30
문의: 이승호 집사 (714)510-1364

◆ **교회학교 QTin 2월 영문판** 어린이들을 위한 2월 영문 QTin 교재가 실내 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 **교회학교 발렌타인 주일** 2월 12일(주일)은 발렌타인 주일로 드러집니다. 특별한 예배와 크래프트가 준비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Bethel Announcements

◆ **영아부 교사 및 소망부 토요학교 교사 모집** 영아부(3부 교사 & TA), 소망부 토요학교에서 봉사하실 교사를 찾습니다.
영아부 섬김/문의: 3부 예배, 김성희 권사 (714)423-5107
소망부 섬김/문의: 2월 4일부터 매주 토요일 12주간,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박종민 장로 (949)742-1285

◆ **영어 중등부(BYM Jr.) 선교 모임** BYM 중등부 Honduras 선교 Orientation이 있으니, 참가 예정자들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장소: 오늘(5일) 오후 1시~2시까지, 비전채플

◆ **영어 중등부(BYM Jr.) Sports & Discipleship II** 'Sports & Discipleship II-The Life of King David'이 3월 3일(금)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2월 12일(주일)까지 Google Forms으로 신청해주세요.
문의: Daniel Hyeon 전도사 (949)677-4911

◆ **AWANA 봄학기 등록** 성경암송을 통해 확실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팀워크를 가르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으로 훈련시키는 AWANA 프로그램에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또한 교사와 TA로 섬겨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봄학기 기간: 3월 10일(금)~ 6월 2일(금) 매주 금요일 3개월간, 오후 7시~9시
교사 등록 기간: 2월 12일(주일)까지
학생 등록 기간/대상: 2월 12일(주일)~2월 26일(주일), K-5학년
문의: 이준호 집사 (909)859-5233, awana@bkc.org

◆ **베델 한국학교 온라인 성인반 및 교사 모집** 한글과 더불어 한국문화를 배우는 온라인 성인반 학생을 모집합니다. 또한 교사 모집 중이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일정: 3월 1일(수)~5월 10일(수), 10주 과정, 4월 5일 휴강
문의: 윤미나 집사 (310)913-3360

◆ **ETI 영어교사 세미나**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된 ETI(English Teaching Institute for Missions) 영어교육을 활용하여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강사: 정광성 선교사, 민윤기 선교사
일정/장소: 2월 13일(월)~2월 16일(목) 오전 9시~오후 5시, 세리토스 선교교회
주관: SWM선교회(Silk Wave Mission)
문의: 장영미 팀장 (714)999-8639, faithjang@swmnet.org
준비물/회비: 200GB 이상 저장 가능한 노트북(혹은 외장용 하드 드라이브), \$150

◆ **Always Be There 대심방** 목회자의 방문은 곧 주님의 이름으로 방문하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돌봄의 자리에 늘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 **축하해 주세요** 오늘 3부 예배 때, 최주영/박민혜 성도의 아들 최민성(MinSeong)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자영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허성욱 집사, 황리나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갈릴리 수양관 3164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RETURN & REBUILD (5)

I, like chunk of wood charcoal (Zech 3:1–10)

1. Reverend F.B. Meyer(1847-1929) of Liverpool Baptist Church in England said this. "The more we know of God, the more we loathe ourselves and repent." ."(F. B. Meyer, The Prophet of Hope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p. 44) Do you agree with this?
2. We all have been called to build healthy church. Zechariah's vision challenges us by refocusing that calling. What is the image of church represented by Joshua the high priest?(v.4, Ref: Eph 2:20-22, Rev 12:10, Is 64:6)
3. God's choice of Jerusalem(believers) was chosen from what circumstances? What lesson does this teach? (v.2, v.4, Ref: Ro 9:16)
4. How will He, as promised, put rich garments on us, who are like chunk of wood charcoal(burned stick)?(v.8, Ref: 2Co 5:21, Ref: Is 53:11, Je 23:5, 33:15)
5. Stone with seven eyes also represents Messiah. This is proof that rebuilding of the temple is us. Read the reference verses and pray together in Jesus' name.(Ref; Ps 118:22, Is 28:16, Mat 21:42, 1Pet 2:6)

Apply to Life

